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9월 (제 39호)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1. 지존하신 삼위이며 거룩한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존경하옵고 지극히 사랑하옵 모든 형제들 :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모 형제와 그 후임자들이 될 다른 모든 총봉사자들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과 보호자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신 우리 형제회의 사제들과, 단순하고 순종하는 모든 형제들과, 맨 먼저 들어온 형제들과, 최근에 들어온 형제들에게, 3.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 여러분의 작은 종 프란치스코 형제가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씻어 주신"(참조 : 묵시 1,5) 그분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4.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에 형제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흠송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지존하신 분의 아드님"(참조 : 루가 1,32)이라는 이름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로마 1,25). 5. 나의 주인이시며 아들들이고 형제들인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사도 2,14). 6.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이사 55,3) 하느님의 아드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7. 그분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분의 권고를 온전한 정신으로 채우십시오. 8. "주님은 착하시므로 찬양을 하십시오"(시편 135,1).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분을 찬미하십시오"(7.71 13,6). 9. "주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참조 : 토비 13,4)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참조 : 토비 13,4)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 견책과 거룩한 순종 안에서 항구하며 여러분이 그분께 약속한 것을 착하고 굳건한 결심으로 지키십시오. 11.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참조 : 히브 12,7)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12.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발에 입 맞추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영예를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13.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평화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참조 : 골로 1,20). 14. 또한 나는 주 안에서 사제가 된 나의 모든 형제들과 사제가 될 형제들과 지존하신 분의 사제가 되려는 뜻을 가진 형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미사를 거행할 때, 어떤 지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 말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호감을 사려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지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의 참다운 제사를 존경심을 가지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 순수하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15. 또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바로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아 모든 원의가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분만이 미사에서 당신 의향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6. 그래서 직접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루가 22,19; 17린 11,24). 만약에 누가 다르게 거행하면 배신자 유다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인"(17린 11,27)이 되는 것입니다. 17. 나의 사제 형제들이여, 외적인 것만을 위반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선고로 용서 없이 사형 받았다고 기록된(참조 : 히브 10,28)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18.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가혹하고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겠습니까?"(참조 : 히브 10,29) 19. 사실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빵을 다른 음식과 구분치 않고 "깨닫지 못한 다든가"(17린 11,29) 함당치 못한 사람이 먹는다면, 아니면 함당해도 먹는 태도가 속없고 불손할 때, 그런 사람은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제20과> 형제회의 조직과 운영

회칙 3장 형제회의 생활

제 20조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등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분류되며, 각각의 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법인으로 인정받는다. 각 등급의 형제회는 이 회칙과 회헌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며 결속되어 있다.

제 21조 각 등급의 모든 형제회는 회헌에 따라, 서약한 회원이 선출한 평의회와 회장(또는 의장)에 의해 촉진되고 이끌어진다. 이들의 봉사는 기한부이며, 모든 회원과 공동체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고 책임이 따르는 직무이다. 각 형제회의 내부 조직은 회헌에 따라, 그 회원들과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또 각 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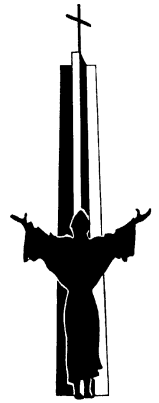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평신도와 사제들로 모인 유기적인 조직이며 이러한 모임을 ‘형제회(fraternity)’라고 부른다. 형제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복음의 본질인 형제적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기 위함이다.



단위 형제회(Local Fraternity)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이 단위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한다. 한 단위형제회의 합법적 설립을 위해서는 1)기본적인 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5명의 종신서약자가 있어야 한다 2) 평의회와 회장 그리고 영적보조자가 있어야 한다 3) 양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원관리, 모임장소, 재정 독립 등 자체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형제회는 매 3년마다 선거총회를 거쳐 평의회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평의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양성담당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그외의 직책들을 선출할 수 있다. 평의회와 회장은 형제회를 활기있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들을 올바르게 성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천해야 한다. 단위형제회는 적어도 3년에 한번 형제적 방문과 사목적 방문을 요청 직상급 형제회와 영적보조자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지구형제회(Regional Fraternity) 지구형제회의 구성은 국가형제회의 권한에 속한다. 지역내에 3개 이상의 단위형제회가 있을 때 구성이 가능하다. 각 지구형제회는 고유의 주보성인을 가지며 주보성인으로 형제회 명칭을 정한다. 지구형제회의 운영은 회헌에 따라 평의회와 회장이 공동책임 진다. 평의

회는 단위형제회의 평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으며 단위형제회와 회원에 도움을 준다. 지구형제회는 단위형제회와 또 다른 단위형제회, 국가 평의회와 단위형제회 그리고 교구와 단위형제회의 중간 역할을 한다. 지구형제회 회장은 단위형제회의 선거총회를 주재하며, 단위형제회와 마참가지로 적어도 3년에 한번 형제적방문과 사목적 방문을 받는다.



국가형제회(National Fraternity) 국가형제회의 구성은 국제형의회 의장단이 하며, 그 나라의 국가 영적보조자를 청하게 될 수도회 장상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국가총회는 한 국가형제회 관할 안에 있는 모든 형제회의 대표 기구이다. 국가평의회는 회칙과 회헌에 맞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적인 결정을 내린다.

국제형제회(International Fraternity) 국제형제회는 초창기 프란치스코의 회개 운동을 따라 살았던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회’와 역사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결속되어 재속프란치스코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형제회는 세계적으로 각 형제회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성좌에 청원을 제출한다.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2007년 9월 22일 지원반 모집을 위한 일일 피정이 있습니다.

♥ 장기결석 회원은 3번 서면으로 통보 월례회 참석을 권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안 나올 경우 제적 할 예정입니다.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 8월 월보>

♥ <월례회 시간표>

12:00-12:50 친교 및 회비납부
1:00- 1:15 시작기도
1:15- 2:00 수사님 강의
2:15- 3:45 각 양성반 교육
4:00 월례회
4:15 신부님 강의 또는 전체 강의
5:00 미사
5:30 친교 및 저녁 식사
6:30 '더 많은 데이지 꽃을' 강의

<워싱턴 성녀 클라라 형제회>



♥ 10월3일(수) 사부님 축일 전야제가 7시부터 DC의 Franciscan Monastery에서 있겠습니다. 사부님 축일을 맞아 9월 25일부터 9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조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영적보조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형제회 9월 월보>



♥ 10월4일(목) 사부님축일을 맞아 6시부터 성삼성당 한인회관에서 친교행사와 미사를 드립니다.

♥ 8월26일 지구형제회에서 형제적방문과 사목적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2007년 9월 월보>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9월 18일, 지구형제회 회장 리차드 빌라마나앞으로 저희 형제회의 Emerging Group으로의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0월 20일에 지구형제회 모임이 있을 예정이며 김요셉형제와 김미카엘형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10월 27일(토)에 있을 10월 월례회는 Canyon Lake 에서의 하루 소풍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까지 도착해 주시고 식사는 Potluck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김기수 신부님께서 9월7일 미국으로 오셔서 9월9일 필라형제회 서약및 입회식에 참석, 9월16일 뉴저지 월례회 참석후 올해 대풍작으로 일거리가 많은 중국 두만강목장으로 9월18일 떠나셨습니다.

♥ 김정순 테레사자매님은 9월7일 뉴욕 출발, 평양에서 오라버니와 가족들을 만나고 9월18일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종덕 미카엘형제님은 북한당국의 사정으로 방북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1일 피닉스로 돌아오십니다. 반갑습니다.

♥ 남줄리아자매님께서 11월 중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매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9/26 남이현 미카엘라
10/2 김종덕 미카엘 10/8 김희자 마리아
10/18 남주현 미카엘 10/16 정부일 디오니시오

<회계보고 8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531.65
수입	회비 (8월)	\$170.00	
지출	미사 봉헌(8/25)	\$20.00	
잔고			\$681.75



하느님의 어린양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짓밟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 "하느님의 일을 건성으로 하는 자, 천벌을 받으리라"(참조:예레 48,10). 20. 그리고 이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려하지 않는 사제들을 그분은 이렇게 단죄하십니다 : "너희의 축복을 저주하리라"(말라 2,2). 21.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 복되신 동정녀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태중에 그분을 품으신 것만으로도 공경을 받는 것이 지당하다면, 복된 세례자가 두려워 감히 하느님의 거룩한 머리에 손을 대지 못했다면, 그분이 잠시 동안 누워 계셨던 무덤도 존경을 받는다면, 22. 하물며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시어 영광 받으신 분이여,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분을 손으로 만지고, 마음과 입으로 영하며, 다른 이들이 영하도록 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 23. 사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품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참조 : 레위 19,2). 24. 이러한 봉사직 때문에 주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십시오. 25. 여러분이 이렇게 눈앞에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세상사에 마음을 쓴다면 이는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나약함입니다. 26.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손안에서 제대 위에 계시는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이고 온 세상은 떨며 하늘은 환호할지어다 ! 27. 오, 탄복하는 위대함이며 지고의 장엄이여 ! 오, 극치의 겸손이여 ! 오, 겸손의 극치여 !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기까지 이렇게 겸손하시다니 ! 28.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시편 61,9).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참조 : 1베드 5,6; 야고 4,10). 29.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이 여러분 전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겨 두지 마십시오. 30. 그래서 주 안에서 훈계하며 권고합니다 : 형제들이 머무는 곳에서 거룩한 교회의 규범에 따라 하루에 미사한 대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註1) 31. 한곳에 여러 명의 사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3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당신께 합당한 사람을 당신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33. 그분은 많은 곳에 계시지만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이시고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으시며, 어디서나 하나이시고, 당신 뜻하시는 대로 주 하느님 아버지과 위로자이신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일하십니다. 아멘. 34.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니(참고 : 요한 8,47), 특별한 방법으로 성무(聖務)에 위임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실천해야 함은 물론, 우리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 안에 차차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과 기타 성물들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35. 그러므로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훈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합니다 : 어디서든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찰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했으면 합니다. 36. 그리고 그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혹 불경스럽게 흩어져 있으면 주위 모아서 보관하여 "그 말씀을 하신"(1열왕 2,4) 주님을 말씀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37. 사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이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으로 제단의 성사가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38. 이 외에 나는 주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께,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신 복되신 마리아와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성인들과 공경하올 나의 주인이며 우리 수도회의 총봉사자이신 모(某) 형제께,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사제들과 축복 받은 나의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39. 나는 나의 큰 탓으로 많은 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주님께 약속한 회칙을 지키지 못했고, 회칙이 명한 대로 성무일도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게을러서도 그랬고, 병약해서도 그랬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서도 그랬습니다. 40.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총봉사자 모(某) 형제에게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청합니다 : 회칙을 모든 형제들이 어김없이 지키게끔 하십시오. 41. 성직자들은 목소리의 음률보다는 마음의 일치에 관심을 두어,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치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목소리는 마음과, 마음은 하느님과 일치시키고, 42. 목소리를 곱게 내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43.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만큼 나도 이것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성무일도나 다른 규정을 준수하라고 말하겠습니다. 44. 누구라도 형제들 중에 이것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가톨릭 신자라도 나의 형제로도 여기지 않겠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45. 회칙이 정하는 규율들 무시하고 떠돌아다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4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참조 : 뢰73,28)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47. 쓸모 없고 주 하느님의 부당한 피조물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수도회의총봉사자인 모(某) 형제와 그의 후임자가 될 모든 총봉사자들, 그리고 형제들의 다른 보호자 및 수호자들, 또한 이들의 후임자가 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 이 글을 소지하여 실천하시고 잘 보관하십시오. 48. 그리고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 이 글에 적혀 있는 것들을 힘써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세상 끝날 까지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더욱 열심히 실천하게 하십시오. 49.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주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

50.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우리로 하여금 실천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시어, 51.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에 불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52.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